

마음껏 즐겨라...주말 금남로 흥겨운 문화축제



23일~11월 둘째·넷째 토요일

2016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공연·체험...20여 프로그램

23일 개막일 장재인 콘서트

여우별밴드·윤영훈 퀸텟 무대

노래·댄스대회, 버스킹 공연

다양한 거리음식...뷰티카페도

신록이 푸르러 가는 4월, 광주 금남로·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가 흥겨운 문화축제로 들쭉인다.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오는 23일부터 11월 까지 매월 둘째와 넷째 토요일 오후 2~7시 시민들을 찾아온다. 페스티벌은 둘째주(5·18민주광장)는 버스킹 공연, 넷째주(금남로 '차 없는 거리')는 공연을 비롯한 각종 체험·참여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광주문화 절정체험 오매! 광주'를 슬로건으로 크게 ▲프린지 공연 ▲프린지 참여, 체험, 문화상품 ▲프린지 공간구성으로 나눠 20여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남로 봄바람'을 주제로 펼쳐지는 23일 개막식 중 가장 눈에 띄는 공연은 오후 3시부터 '민주의 종' 앞에서 열리는 '장재인 콘서트'다. 강진 출신 싱어송라이터 장재인은 지난 2010년 Mnet '슈퍼스타K' 시즌2에 출연하며 독특한 음색으로 전국민 사랑을 받았다. 또 같은 장소에서 오후 5시까지 '슈퍼스타K' 6에서 인기를 끈 합평 출신 '여우별밴드', 윤영훈 퀸텟, 재즈밴드 'Soof trio' 등이 흥겨운 음악을 선사한다.

전일빌딩 앞에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매댄

스 '즐거운 하루'와 광산농악 길놀이도 진행된다. 또 우체국 앞에는 오후 4시까지 청소년 대상 노래·댄스 경연대회 'K-POP 광주 아이돌 거리축제' 무대가 마련된다. 축제기간 분수대 옆 회화나무와 동부경찰서, 5·18기록관, 우체국 앞 등 곳곳에서 다양한 버스킹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공연예술팀을 대상으로 하는 '아시아프린지 창작경연페스티벌'도 진행된다. 경연장르는 고전무용, 현대무용, 창작 음악 등이며 예선 7회, 본선 1회를 통해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을 가린다.

예술창작 퍼포먼스도 매회 이루어진다. '환벽당 사랑이야기', '김덕령을 깨워라' 등 지역을 주제로 만든 창작공연을 볼 수 있다. 또 오키나와, 색소폰, 합창, 무용 등 광주 아마추어 시민예술단체 공연과 재즈, 마술, 마임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지는 '년별 프린지 공연 예술가'도 계획됐다.

참여, 체험, 문화상품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다.

'문화의 문을 열자'는 의미인 플래시몹 '문을 여시오'는 가수 임창정의 노래에 맞춰 다 함께 춤을 추는 댄스 퍼포먼스다. 약 200명이 참여할 예

정으로 간단한 안무로 구성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다. 이곳저곳에서 갑자기 펼쳐졌다 갑자기 사라지며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예정이다.

단체티를 만들어보는 기회도 주어진다. 각자 원하는 문구나 도안을 무지 티에 직접 그려 넣으면 약 30분 후 출력돼 자신만의 티셔츠를 가질 수 있다. 먹거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금남로 일원에서 펼쳐지는 '금남로 도시락 데이'는 '맛'을 만나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테이블 위에 놓인 재료를 이용해 각자 취향에 맞는 김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매 행사마다 약 500인분을 준비할 예정이다.

금남로 전일빌딩 앞에서는 화가가 돼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전문 작가가 배경을 그린 가로 20m·세로 2m 크기 대형 캔버스에 시민이 그림을 채워넣는 이벤트다.

아시아 이색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금남공원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인 '아시아 데이'는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다문화가정이 참여해 음식, 의상, 전통악기 체험을 선보인다. 23일에는 필리핀 문화를 만날 수 있다.

흥겹게 축제를 즐긴 시민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금남로 등 축제장 곳곳에 테이블, 의자, 파라솔을 비치해 휴식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로드카페에서는 커피와 차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고, 로드푸드카페는 입맛을 다시게 하는 다양한 거리음식을 선보인다. 로드뷰티카페에서는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네일아트, 메이크업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SNS세대를 위한 '광주문화 절정표정 셀카사진전'이 행사기간 내내 진행된다. 축제장에서 문화를 즐기는 재미있는 표정으로 셀카를 찍어 광주프린지페스티벌 홈페이지(fringe-festival.kr)에 올리면 매달 선정해 문화상품권 등 선물을 증정한다. 문의 062-224-032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장재인



여우별밴드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23일 금남로 일대에서 시작한다. 지난해 '금남로 차없는 거리' 공연 모습.

국립중앙박물관 한일 대표 반가사유상 내달 첫 동반전시



국립중앙박물관이 특별전 '한일 국보 반가사유상의 만남'을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왼쪽)'과 일본 국보인 '목조반가사유상'을 동시에 볼 수 있다. /연향뉴스



채희철 첼로독주회

22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봄날에 듣는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채희철 첼로독주회가 22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 소나타', 를 만날 수 있다. 또 드뷔시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D단조', 베토벤 '첼로소나타 5번 라장조 작품 102 중 2번' 등을 들려준다.

채씨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거쳐 오스트리아 모차르트음악 국립음악원을 최우수로 졸업했으며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독주회를 비롯해 전세계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또 프라하 스테타나홀에서 연주를 갖는 등 실내악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음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슈베르트 리오, 채리티 챔버 앙상블, 유럽 앙상블, 한국 페스티

벌 앙상블 멤버로 활약 중이다. 피아노 반주는 오랫동안 듀오 리사이틀을 함께 해온 아내 이수희씨가 맡았다.

티켓 가격 전석 2만원. 문의 02-6412-305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근대 역사와 전쟁'... 전남대 역사문화연구센터 학술대회

20세기 근대 동아시아와 태평양, 한국 의 역사를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다.

전남대 역사문화연구센터(센터장 임종명·사학과 교수)는 22일(오후 2시~6시) 인문대학 2호관 교수회의실(4층)에서 2016년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세기 전쟁과 역사, 그리고 인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근대 역사와 전쟁, 그리고 문화'의 상관성에 초점을 맞춘다.

'총력전 작동 기제의 작용-반작용'의 제 1주제는 성균관대 이병래 교수가 발표를,

같은 대학 최규진 교수가 토론을 맡는다.

이어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종전/해방 직후 남한'이라는 제2주제는 임종명 교수와 연세대 임성모 교수가 나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세계사 좌표'의 제3주제는 대전대 황동하 교수가 발표를, 광주대 류시현 교수가 토론을 하며, 제4주제 '한국, 일본, 그리고 베트남전쟁'은 연세대 김예림 교수와 전남대 이영진 교수가 각각 발표와 토론에 나선다. 문의 062-530-0788. /박성천기자skypark@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역선 1층)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 400여점 전시
• 판매도 가능

창사 64주년

하늘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취업으로 통하는 패스워드! 초당대학교

2017학년도 국내 최초 '드론학과' 신설

*비행교육원 운영
*아시아나항공 및 에어부산과 MOU 체결

www.cdu.ac.kr 입학문의 1577-2859